

사람
냄새가
배어
있는

울산 주전 바다





김정민

영산대학교 건축플랜트학과 교수
해안마을경관형성사업 경관설계자



주전마을은 여느 바닷가 마을의 풍경과 사뭇 다르다. 즐비한 찻집과 모텔 간판에 익숙한 방문객들은 조금은 낯선, 조용하고 차분한 어촌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마을 해안길과 몽돌해변을 따라 걷다보면 먼 바다에 떠 있는 유독 큰 배들이 고기잡이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인근에 현대중공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욱 놀라게 된다. 조용한 풍경 속에 감춰진 극적인 대비라고나 할까.



동해 상공에서 바라본 주전마을 전경
© 울산광역시 동구청



정갈하게 정돈된 주전 육리의 안길
© 울산광역시 동구청

바다가 그리운 해안도시

산업도시로 널리 알려진 울산은 원래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양 도시이지만 바닷가는 대부분 임해산업단지로 조성돼 있다. 유서 깊은 어촌마을은 거대한 공장부지로 바뀌었고, 내뿜는 공해는 사람들을 더욱더 바다에서 멀어지게 했다. 이제 울산은 바다가 그리운 해양도시가 된 지 오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낙동정맥이 동해를 따라 힘차게 남으로 치달을 때, 거센 산업화의 회오리는 산맥을 기대며 동해바다를 품은 어촌마을을 감히 범접하지 못했고, 용케 '살아남은' 마을들은 주전마을을 시작으로 동해를 바라보며 웅기중기 점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전마을은 여느 바닷가 마을의 풍경과 사뭇 다르다. 즐비한 찻집과 모텔 간판에 익숙한 방문객들은 조금은 낮선, 조용하고 차분한 어촌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마을 해안길과 몽돌해변을 따라 걷다보면 먼 바다에 떠 있는 유독 큰 배들이 고기잡이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인근에 현대중공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욱 놀라게 된다. 조용한 풍경 속에 감춰진 극적인 대비라거나 할까.

주전마을에서 나고 자라 주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구명가게 주인 아주머니 김순연 시조시인의 작품에는 그러한 주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함조롭게 배어 있다.

목욕탕에 뜨는 배

김순연

여기는 주전동

해안을 바라보는 동부회관목욕탕

각국의 시장에서 연속 일등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조선소의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세계로 나아가는 기선의 출발지가

여길 수밖에 없는 까닭은

H중공업에 다니는 남편의 아내들이

실오리 하나 걸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배를 밀고 있기 때문이다.







주전 육리의 농촌 경관 © 김정민



주전 육리의 돌담 © 김정민



주전육해리(朱田陸海里)

주전마을은 농촌과 어촌의 풍경을 함께 취하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해안로 위쪽인 번덕·중리·상리는 주로 농사에 전념하는 데 비해 해안에 면한 하리와 큰불 구역은 전형적인 어촌이다. 주전마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 정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주전리(朱田里, 朱田陸里)와 주전해리(朱田陸海里)로 나뉘어 있었다. 이후 1749년(영조25년)에 편찬된 울산읍지인 학성지(鶴城誌)에는 '육리(陸里·농촌)'와 '해리(海里·어촌)'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전마을의 경관은 바

다를 매개로 한 해안경관과 배후의 농촌경관이 함께 어우러져 주전마을만의 수려함을 자랑하고 있다.

주전 사람들은 마을의 깊은 내력과 함께 삶터로써의 마을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전마을에 들어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운위될 만큼 마을은 산과 들, 바다를 끼고 있어 물산이 풍요로운 곳이었다. 층층한 역사와 물산의 풍요는 오늘날 '주전내기들' 특유의 자존감과 단결력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외부에서 주전마을로 들어가자면 동해안로가 유일하다. 구곡간장



주전의 특산품인 돌미역 건조(마을 안길) © 김정민

미어지는 사연을 담고 있는 듯 굵이굵이 남쪽 고개를 넘으면 마을 어귀까지 도로를 따라 숲이 우거져 있고, 봄이 되면 벚꽃 터널이 돼 마을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무성한 숲 그늘을 벗어나면서부터 멀리 동해의 쪽빛 바다가 어느 순간 한눈에 들어온다. 이 길은 주전마을을 자연스럽게 육리와 해리로 나누며 섬 없이 북쪽으로 향해 강릉~양양~속초를 거쳐 마침내 함경도에 이르는 바로 '7번 국도'의 지선구간인 '동해안'로다.

마을을 관통하며 지나는 동해안로를 따라 떠처럼 길게 늘어선 방풍림은 주전마을의 주요 경관요소 중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그

자리에 펜션과 같은 건물로 채워지는 등 조금씩 훼손되는 것은 물론 건물이 점점 바다를 가리게 돼 안타까움이 있다. 동해안로 방풍림과 더불어 주전마을의 숲은 크게 세 곳에 펼쳐져 있다. 뒷미뚝숲과 우두들(野)을 감싸고 있는 방풍림과 뒷새미골과 번덕마을 숲이 하나의 군(群)을 이루어 산에서 바다로 이어지고, 흠골에서 사을끝돌 방향의 방풍림이 주전마을의 숲 경관을 이룬다. 이처럼 주전마을의 숲은 마을과 마을을 경계 짓는 요소인 동시에 물(陸)과 바다(海)를 이어주는 경관축을 유도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주전마을은 농촌과 어촌의 풍경을 함께 취하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해안로 위쪽인 번덕

주전항 파노라마 전경
© 울산광역시 동구청



주전 육리의 농촌 경관
© 김정민



· 중리·상리는 주로 농사에 전념하는 데 비해 해안에 면한 하리와 큰불 구역은 전형적인 어촌이다.



주전천의 여름 © 김정민

주민들의 이러한 열망은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연결됐다.
즉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로의
개발이 아니라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경관정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전항 전경 © 김정민



어촌의 새로운 변화 :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주전(朱田)! 토색(土色)에서 비롯된 활활 타오르는 붉은 발.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밝고 맑은 주전마을은 근래에 들어와서 더욱 뜨겁다. 최근 들어 지역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되면서, 누구나 한번쯤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멋진 주전방파제와 성지방돌 상징조형물은 지역 명소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뿐 아니라 마을을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트와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오토캠핑장과 물놀이장,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 주전은 연중 내내 바쁘다.

이러한 주전마을의 변화는 지난 2010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비롯된다.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18개의 사업제안서가 나왔고 서면평가, 현지평가, 종합평가 및 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5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

됐는데, 그중에 주전마을이 포함됐다. 주전마을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배경에는 주전이 울산 12경에도 포함되거나, 〈어촌에서 온 편지〉 같은 영화나 국내 여행 책자에도 소개될 만큼 수려한 자연환경을 외부의 대규모 개발 바람으로부터 보호·보전하자는 필요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특히 주민들의 이러한 열망은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연결됐다. 즉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로의 개발이 아니라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경관정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경관을 만들어 유지하는 마을 규약을 제정, 마을 주민 스스로가 지역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생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업은 16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옛 제당 터에 세워진 성지방돌 상징조형물 © 울산광역시 동구청



해안길은 신비한 이야기가 되어

주전마을 해안가에는 이름만 들어도 경계운 수많은 바위가 있다. 바위에 담겨 있는 사연은 끝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파도가 칠 때 보일 듯 말 듯 감박거린다는 데서 유래된 감박덤이, 바위가 검고 커서 강해 보인다는 의미의 강대돌(剛大岩), 몽돌 해변에 솟은 노란색의 바위 노랑돌, 아랫마을 제당터의 성지방돌과 그 주변인 담병개, 시루 모양의 시리바위, 바위에 꽃 모양의 무늬가 파였다고 해서 붙여진 꽃바위... 또 이덕등대가 있는 이덕도는 물 밑에 있는 작은 암초에 불과하지만, 태평양전쟁 때 큰 전함이 여기에 걸려 좌초됐을 때 주전 사람들이 나서서 많은 인명을 구했다는 의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외에도 동방, 사울끝돌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바위는 마을사람의 삶에 스며들어 억만 겁의 세월로 주전마을을 품고 있다.

이렇듯 바다를 보며 걷는 해안길은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주전 터줏대감이 들려주는 신비한 이야기책이다. 그 이야기를 점차 이해하며 옮기는 발걸음은 자연으로, 마을로, 나아가 자신의 깊은 내면세계로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듯, 이를 테면 마을도슨트 제도가 생겨 방문객에게 주절주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며 해안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지금 해안길은 자동차 때문에 편하게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지만 올해 말쯤 보행 데크가 완성되면 신화와 전설이 가득한 이야기 길이 될 것이다.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군데군데 야무지게 쌓은 돌담과 잘 정돈된 담장이 눈에 띈다. 해안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시멘트 블록 담장 아래에 돌담과 비슷한 느낌의 돌을 두세 단 쌓아올려 해풍에도 건널 수 있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놓았다. 주전의 돌담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거치면서 시멘트 블록 담으로 많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돌담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돌담의 하부 두께는 70~120cm로 아주 두꺼운데, 거친 산자갈을 일정한 틀 없이 막돌막쌓기를 했다. 이와 같은 돌담은 욕리에 속한 중마을과 상마을에도 잘 남아 있어 어촌의 정취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주전마을에는 어항(漁港) 3개(주전항, 큰불항, 하리항)가 있는데, 이 가운데 법정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주전항의 규모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소규모 어항이다. 주전항의 방파제는 해안길에서 가장 시선을 끈다. 높이가 무려 6m가 넘을 만큼 장대하고, 그 끝에 석가탑을 닮은 새빨간 색의 등대가 생뚱맞게 있기 때문이다. 방파



주전해리의 돌담 © 김정민





적당한 너비의
보행데크와
휴게공간이 전부다.
해안길을 걷다가
바다와 몽돌해변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몽돌해변의 풍경은
가히 일품이라
할 만하다.



몽돌해변 보행데크와 휴게 공간
© 울산광역시 동구청



해안길에 있는 몽돌여인 김순연 서인파 집
© 김정민

제의 높이와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잦은 월파로 인한 어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때문인데, 이로 말미암아 결국 주전항에서 바다는 완전히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지금 주전방파제는 외부 방문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로 변모했다. 방파제 벽에는 바다를 소재로 하는 오브제와 주전의 특산물인 전복과 미역, 그리고 해녀의 모습 등의 부조가 장식돼 있는데, LED조명을 활용해 밤에도 볼 수 있다. 위압적이던 콘크리트 장벽이 이제는 거대한 벽화로 새롭게 바뀌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방파제 아래에 항상 어구(漁具)로 너저분하던 물양장은 선주(船主)들과 협의해 바다에 선을 그어 각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준다.

밝고 환하게 바뀐 주전항에서 해안을 따라 조금만 굽어 돌아가면 나타나는 넓은 공지 너머로 까만 몽돌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울산 12경에도 포함된 주전 몽돌해변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편히 물놀이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겨울철 이른 아침에는 물보라 속에 몽돌이 전하는 파도의 사연을 들으며 걷는 멋진 산책로이기도 하다.

넓은 공지는 공유수면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됐으나 일부 면적을 넓은 보행데크로 바꾸면서 평범하던 넓은 공지가 해변광장으로 탈바꿈했다. 이로 인해 주변에 면한 집들이 커피숍으로 바뀌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보행데크에는 간단한 휴게시설 외에 특별하게 만든 시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지금 한창 공사 중인 해안길의 보행데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적당한 너비의 보행데크와 휴게공간이 전부다. 해안길을 걷다가 바다와 몽돌해변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몽돌해변의 풍경은 가히 일품이라 할 만하다. 이 휴게 공간은 바다를 향한 시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한 배려가 돋보인다.

사라진 제당, 남은 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어촌 마을들은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이른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제당을 모시고 있다. 주전마을에도 10개의 제당이 있었는데, 그 수가 여느 마을과 다르다. 주전마을은 원래 7개의 작은 동네로 구성됐지만 동네마다 한두 개의 제당을 따로 모시는 경우는 다른 어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전만의 특징이다. 해안길을 따라 위치한 3개의 제당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주전마을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2005년께 경로



마을의 노거수 © 울산광역시 동구청

당을 신축하면서 제당의 위패를 옮겨오게 됐으나, 이후 모두 소실돼 흔적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경관형성사업을 통해 이러한 고유의 무형자산을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제당을 소재로 한 마을의 특성으로 삼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수차례의 마을회의를 통해 '제당 터 문화원형 콘텐츠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해안길의 옛 성지방돌 제당 터에 세워진 상징 조형물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됐다. 어른 키보다 훨씬 더 큰 4개의 거석이 세워져 보는 방향에 따라 제당의 형태가 드러난다. 이 독특한 형태 때문에 방문객들은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안내문도 읽어 보곤 한다. 그러나 사실 '제당 터 문화원형 콘텐츠 조성'은 제당 그 자체보다 제당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흔적만 남은 제당 터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 방치되던 노거수(老巨樹)를 찾아 주변을 단장해 마을주민과 친숙한 공간이 되고자 했다. 현재 조성된 제당 터에는 주전마을에 있던 제당들의 위

치와 간단한 설명을 담은 작은 입석을 세우고, 그 주변에는 쉴 수 있도록 벤치를 놓았다. 편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보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다양한 제당 터를 통해 주전만의 독특한 제당문화를 엿볼 수 있다.

마을 소식지 〈파도소리〉 창간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마을조직들이다. 공식적으로 7개의 조직(동발전위원회, 어촌계, 청년회, 노인회, 나잡회, 선주협의회, 새마을협의회)이 있는데, 마을의 모든 대소사가 이들 조직 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덕분에 지금까지 마을사업의 모든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마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때로는 의견을 수렴



파도소리는 주전마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원주민 뿐만 아니라 서먹해서 회의 참석이 부담스럽던 이주민들에게도 이 마을소식지는 마을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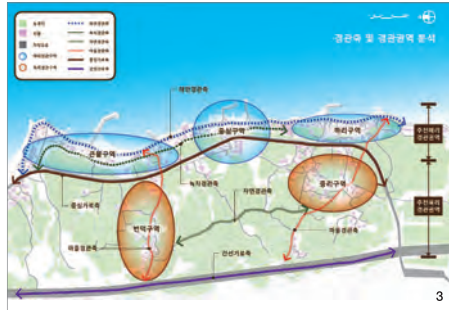
마을 소식지 파도소리 창간호 발행
(동발전위원장과 총무)
© 울산광역시 동구청

하고 협의하는 일이다. 경관형성사업을 통해 가장 의미 있던 일은 주전동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만든 마을소식지 <파도소리>의 창간이라고 할 수 있다. A4 크기 4면 분량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을 담고 있는데, 벌써 지난 5월에 창간 1주년 기념호가 발행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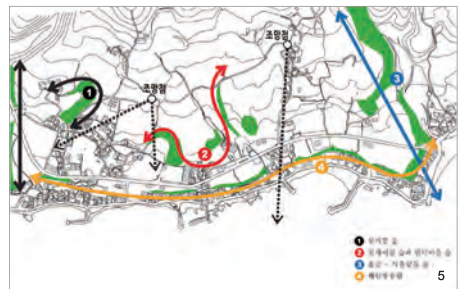
매월 400부 정도 발행되는 <파도소리>는 주전마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원주민뿐만 아니라 서먹해서 회의 참석이 부담스럽던 이주민들에게도 이 마을소식지는 마을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출향인사들에게도 발송돼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출향 인사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고향과 잇는 연결통로가 됐다. 이제 <파도소리>는 주전마을의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이 됐으며, 바로 이것이 경관형성사업의 근원적인 취지이자 이번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의미 있는 소득이다.

해안로를 중심으로 남쪽에서 바라본 주전마을 전경
© 울산광역시 동구청





- 1 주전마을 주요시설현황
 - 2 주전마을의 주요 경관거점
 - 3 마을의 경관축과 경관권역
 - 4 주전마을 둘레길 조성계획
 - 5 마을의 숲과 경관구조
- © 울산광역시 동구청



입향종숙이라 했던가,
그 고장에서는 그 풍속을 따르듯이
주전마을의 변화는 마을사람들의 내적인
변화와 동참,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함을 깨닫는다.

여백을 살리는 계획

벌써 3년째로 접어든 주전마을의 경관형성사업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이는 처음부터 마을사업의 시작을 비워내고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토론과 협의과정 속에서 모아진 의견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주전마을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을 찾고, 뛰어난 해안 경관은 물론 마을경관과 생활문화 경관의 잠재적 가치 등을 발굴해 다듬고 정리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공간의 여백, 장소의 여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작업은 채워 넣기보다 훨씬 지난한 일임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삼 느끼게 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눈에 띄는 그럴 듯한 뭔가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안도감을 얻는 습성에 빠져 버린 터라, 길으로 티 나지

않게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마을주민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막힌 듯해도 찾아 갈 길은 바로 마을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법.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각종 어구를 주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해변을 점유한 천막구조물도 철거하기로 약속했다. 곧 주민과의 경관협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마을이 유지·관리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입향종숙이라 했던가, 그 고장에서는 그 풍속을 따르듯이 주전마을의 변화는 마을사람들의 내적인 변화와 동참,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아직도 주전마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